

한번은 이런일도 있었다.. 하도 학대당했던 나머지 스탈린은 언젠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베틀른 적이 있었고, 자신을 때린 아버지에게 단검을 던졌다.

결국 스탈린은 가출해야 했고 아버지의 화가 풀릴 때까지 이웃집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스탈린 강철권력'의 저자 로버트 서비스는 그 당시 스탈린이 겪은 무차별 폭력이 스탈린의 성격과 인간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이는 옆동네 총통의 어릴 적과 유사하다.

스탈린의 아버지는 그러나 머리는 꽤 좋아 그루지야어, 러시아어, 아르메니아어, 터키어에 유창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술주정뱅이가 되기 전에는 인간적 매력도 상당했고, 가정적이었으며 사업도 잘 되어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이 결혼을 시기한 마을 여성들의 악질적인 소문과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설이 있다. 어떤거냐면..스탈린의 친부는 다른 사람이다 카더라~ 류의 소문.

실제 스탈린도 사석에서 사실 자신의 친 아버지는 어린 자신과 어머니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마을 성직자가 아닐까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스탈린과 그의 아버지 사진을 비교해보면 너무 붕어빵같은 부자의 모습에서 알 수 있다시피 농담일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악질적인 소문과 돈 대신 술을 내는 그루지야 특유의 관습 탓에 나날이 과음하여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렸다. 나중에는 신발도 제대로 못 만들고, 가정에 폭력을 일삼으며 술친구 중 하나가 길에서 자다 입돌아가 죽어버렸는데도 바뀌는 것 없이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